

영적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2017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



설교 임종달 목사, 축도 이용주 목사, 기도 최병진 목사, 사회 윤기석 목사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2017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가 지난 6일(월) 오전 11시 총회목회대학원 대강전에서 드려져 마지막 때 땅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목대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



총회신학교 및 목대원 교수진



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맨전 5:89 말씀을 본문으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 받아 나선 사역자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므로 영적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전하고 "믿음을 굳게하여 사탄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신입생들과 신학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교수소개가 있었으며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는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구원의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 길만을 가는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복하고 신학교 및 목대원 직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목대원 원우회장 이종현 전도사의 헌금기도 후 교단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점심식사 후 총회신학교 목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신학연구원 학감 김갑터 목사를 강사로 '시대의 표적'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사역들을 위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포했다.

"신앙과 모든 행위의 절대적인 판단기준과 원칙은 성경"

조용목 목사, 웨신대(WGST) 목회최고지도자과정 개강예배에서 설교



설교 조용목 목사, 총장 정인찬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3월 6일(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WGST, 총장 정인찬 목사)

사)목회지도자교육원 2017학년도 목회최고지도자과정(AMP) 개강예배에서 설교하고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예배는 본부장 정권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준영 목사의 대표기도, 최고지도자과정 목회자들의 특송, 총장 정인찬 목사의 인사말 및 감사소개,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후 5:17, 고전 2: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조 목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든 행위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과 원칙은 성경"이라고



강조하며 바른 성경관과 기독교에 대하여 말씀하고 "성경과 복음전파에 반하는 그릇된 주의와 사상 및 교회의 세속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진리 수호와 한국 교회의 정체성 회복에 앞장서며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전파와 교회부흥에 헌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용목 목사는 이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인 교회는 그 본질과 특성이 거룩(Holiness), 명예(Honor), 진실과 정직(Honesty)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며 이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3대원리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당부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는 개혁주의에 기초한 복음주의 신학교육기관으로 WCC와 같이 복음을 혼합해 가는 단체나 신학사조에 맞서 오직 말씀 중심의 보수정통신학을 전수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교단과 임무협약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활력과 자부심을 부여하며 현장 목회와 평생교육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목회 최고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토뉴스

교단 총회신학원(원장 임종달 목사)은 지난 3월 6일(월) 2017학년도 총회신학교 및 목대원 입학식 및 개강예배에 앞서 2층 회의실에서 교수회의를 갖고 2017학년도 1학기 수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하여 사랑하라'



조용목 목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29,30)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은 아무리 거둬도 얻고 잃어도 잃지 않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관념이 고착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생을 얻으려면 잘못된 관념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천한 행실이 구원 얻는 요건이다"라는 관념은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잘못된 관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 관하여 알고 원하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름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선한 일에 힘써서 종교적 계율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행함으로써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간의 상대적 선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을 그 같은 선을 행하는 선생으로 생각하며 영생의 진리를 물으려고 한 것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임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자꾸 쌓아나가면 이 선이 자기의 죄를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에 이르거나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천국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폐단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다"라는 관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고쳐서 "네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종교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념으로 인하여 영생 얻는 길을 외면하고 멸망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기독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잘못된 관념을 교회에 주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영생을 얻으려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압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 99%가 아니라 100%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90%에 자기 행위 10%를 보태면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99%에 우상숭배 행위 1%가 더해지면 우상숭배자로 취급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이유이며 목적인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관념이 남아있으면 이를 뿌리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믿고 전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중동부전선 제12보병사단 위문 예수님의 사랑 전해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은 목사는 지난 2월 28일(토) 백두대간의 중심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중동부전선 제12보병사단을 위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영하 10도 인북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통일위 전령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를 비롯 전지 총무 김병목 목사와 목회자들이 함께하여 위로하며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다. 사단에 도착한 목회자 일행은 사단장(을지교회 집사)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그동안 사단에서 절로 같은 경계로 무장공비 침투를 막고 전장을 소탕했으며 6.25 당시에도 철저한 방위능력을 발휘했던 것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단장은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심에 큰 힘을 얻어 입무환수술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총회장 조남영 목사는 부대와 장병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앞으로도 국토통일위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목회자들은 부대에서 준비한 지역특산물 향토와 사례



기 국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준비해간 TV, 보온통, 음료,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단장의 안내로 을지전망대와 제4 땅굴을 견학하고 아직도 남침자취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설명 듣고 국기안보에 대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돌아왔다.



“탈북동포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기대”

통일연합종교포럼, 한민족연합선교회에 의약품 전달

(사)통일연합종교포럼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지난 3월 2일(목) 경기도 가평 소재 열린 북지랜드(원장 김희신 목사)에서 한민족연합선교회에 의약품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행사본부위원장 김관중 목사의 기도, 여성 본과위원장인 장인옥 목사의 성경봉독, 탈북동포인 임혜진 선교사의 특송 순으로 진행했다.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민 25:10~13 말씀을 본문으로 ‘기장 가지 있는 삶’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 우리는 민족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 사실(fact)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판단과 언행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때 그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예배는 총재 원종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의약품 전달식은 한창중 중경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대표 김요셉 목사와 한민족연합선교회 대표 정창원 목사가 나와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을 전달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이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열린북지랜드(이사장 원종분 목사)와 한민족연합선교회(대표 정창원 목사)가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서를 교환했다.

이사장 황충기 장로는 “오늘 이렇게 한민족연합선교회에 의약품 전달식을 통하여 탈북동포들에게 미안하마나 도움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였고, 한민족연합선교회 정창원 목사는 “의약품을 전달받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의약품이 현재 탈북하여 세계 도처에 흩어져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통일연합종교포럼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며, 북측 동포들에게 필요한 필수품, 의약품 및 각종 지원활동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2005년도에 창립하여 2007년도에 통일부 소속사단법인으로 인가된 단체이다. 북한동포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병원복구지원 사업과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그들의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깨어 있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되어야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제14회 신학세미나 개최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신학협의회(회장 강용희 목사)는 지난 3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제14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회장 강용희 목사의 사회로 신학협의회 부회장 심만식·노영배·임윤임·이하영·려경덕 목사의 ‘나리와 민족’, ‘예총연과 기교협’, ‘신학협의회와 각 교단 신학원’, ‘28개 총회와 3개 단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위하여’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사무총장 반정용 목사의 감사사로 세미나에 들어갔다.

‘침뎀 빛과 거짓된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영근 목사(총회신학연구원 성경신학 교수)는 사탄마귀의 기원과 사탄을 지칭하는 별칭이자 고유명사가 된 루시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주목사는 “절대 존재자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다 영계에서 축출되어 공중 권세 잡은 자(엡 2:2)가 된 악의 세력, 곧 마귀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이지만,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절대적이고 대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서, 동시에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조된 천사였기에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 가장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추락한 실존이며 주님 나라가 임하고 마지막 심판이 치러진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될 상대적 실존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교회건강연구원 ‘교회건강회복’ 콘퍼런스

계시록 일곱 교회 통해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



교회건강연구원(원장 이효상 목사)이 오는 3월 23일(목)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교회건강, 열린목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그동안 연구원은 매년 6월이면 작은 교회 또는 미지립교회 목회자 500여 명을 초청해서 매년 부흥목회 세미나를 열었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미지립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1년에 한번 씩 나누기 위해서였다. 이

렇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국 교회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 기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던 것을 이번엔 한국교회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건강을 회복하는 콘퍼런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론-일곱 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원 이효상 원장을 주강사로 개최된다.

후원 이사장 신상현 목사(울산미도교회)

는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은혜롭고 풍성한 목회 현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회자들의 소망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건강연구원은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 가 될까?’라는 그런 물음에서 출발했다”며, “향후 10년 후의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와 초청사를 밝혔다.

교회건강연구원은 행사 때마다 새로운 신간을 출간, 교회건강 시리즈를 내놓으며 교회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제공해 왔으며, 이번에도 이효상 원장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과 처방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건강과 새로운 회복을 모색하는 콘퍼런스이다.

콘퍼런스는 3월 22일까지 교회건강연구원 홈페이지 행사참가란에 사전 신청하면 선착순 300명에 한하여 참가비는 무료이다. 단 당일 현장 참가 시는 1만 원의 참가비가 있다.

예성 부흥사회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총재 이기운 목사, 대표회장 김영일 목사

제34회 예성 부흥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제일교회(안윤수 목사 사무)에서 열렸다. 김부영 목사(33회기 대표회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총회장 이동성 목사가 창 37:18-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총회와 전국교회, 부흥사회, 나라와 민족과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석근 목사(33회기 총재)의 격려사와 이강춘 목사(교단총무)의 축사가 있었다.

첫째날 밤 9시부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무처리와 함께 한 해 동안 봉사할 임원들



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34회기 선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재 이기운 목사 △상임부총재 김분식

목사 △대표회장 김영일 목사 △사무총장 임태진 목사 △서기 정성환 목사 △부서기 전승환 목사 △회계 김성은 목사 △부회계 최윤영 목사.

예감, 인도 그레이스신학교 첫 졸업식 열려

손선영 목사의 기념교회가 세운 학교

예수교대한감리회 전 감독 손선영 목사는 지난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인도 판잡주에 소재한 그레이스신학교에서 강의했다.

그레이스신학교는 손선영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부천시 소사구 소재 기쁨교회에서 세운 신학교로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와 담임

을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해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육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인도 판잡주에는 힌두교와 씨크교가 성행하고 있어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아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손선영 목사는 해외선교를 위해 지난 2012년 11월 17일에 인도 판잡주에 그레이스신학교를 설립했으며, 2014년 2월 11일에는 더크나우에 기념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 그레이스신학교에는 53명의 재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23일에는 제1회 졸업생으로 20명이 배출되어 복음사역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제12회 자랑스러운 연신원상 시상식 개최

연신원 총동문회, 신학부문·선교부문·목회부문 등 분야별 시상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설동욱 목사)는 지난 3월 13일(월) 연세대학교 연세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자랑스러운 연신원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신학부문 대상에 유상현 교수, 선교부문 대상에 김한기 목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그밖에 연신원상 목회부문하고 대상에 이은철·김삼미·김종우·조인호 목사, 부흥사부분 대상에 김병호·김우경·최영식 목사, 여성지도자부문 대상에 박양임 목사, 교육부문 대상에 조예환 목사, 사회부문 대상에 유명희 목사를 각각 선정하고 이날 시상했다.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한 동문 여러분들은 연신원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설동욱 목사는 이날 학교 측에 모교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상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수석부회장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실무부회장 권영의 목사의 대표기도, 명예회장 피종진 목사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함 그릇’이라는 주제의 설교, 연신원 목사·엄정목 목사·유영권 대학원장의 축사, 김병은 목사·배진구 목사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나라의 인성과 국가발전을 위해’ 김용철 목사가, ‘학교발전과 총동문회를 위해’ 하인자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직전회장 엄버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글로벌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1986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설립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 총장 제임스 송 박사)가 미 연방정부 버뮤다 대학교 재단법인 하기와 미 연방정부 교육부와 대학학적 인준기관인 CHEA 인준을 받았다.

설립 31주년을 맞는 미드웨스트대학교는 미국에서 동양인 이민자가 설립한 종합대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미 연방정부 교육부 인준을 받은 대학교이다.

배출된 동문은 대학 총장, 교수, CEO, 고위직 공무원, 군 고위직 간부, 목사, 선교사, 의사, 중·고등학교 교장 등 전 세계 60여국에서 전문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정근도박사(전, 과거저 장관) 미국 최첨단무기 병커버스터 개발자이며 미

사일 전문 생산회사 회장 신대용 박사, 한국 육군대령 출신 노병천 박사, 강병도 총장(향신 대학교 설립자) 율학원 박사(전 중앙음대학교) 황태현 사장(전 포스코 건설) 미얀마 현 부통령 페루 국회의원 다수 등이 동문이다.

동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항공관련 산업 발전과 여행 수요를 위해 항공 관련 글로벌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 B.S Aviation Management/Flights, 항공학과(선공·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운항사, 객실승무원) 과정을 신설(미연방정부 인가기관에 신청하여 2017년 2월 8일 지로 인준하가를 취득하고 한국·중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항공 조종사 및 관련 분야에 도전한 인재들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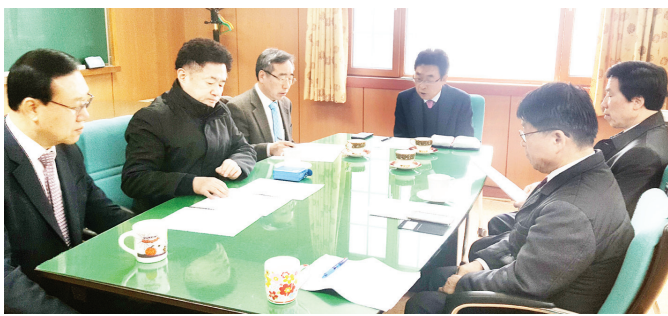
3월 31일까지 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3월 2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6차 총회 임원선 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오일선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8:4-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



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정의섭 목사의 경위보고가 있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문발송과 함께 목양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확신하라”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북울산순복음교회(담임 윤득주 목사)에서 지난 2월 28일(화) 열려왔던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권선식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이동백 목사의 대표기도, 직전회장 오경덕 목사(한마음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갈 4:12-15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주

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므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확신하고 그 능력 안에서 현재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종들은 그러한 면에서 쓰임 받는 것이 복이요,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이요, 선을 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한 목회자와 사모들은 현 시국을 걱정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 부흥과 발전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직분 감당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어 재무 김은수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북울산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다과와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역 감당하길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정광호 목사)는 지난 2월 20일(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소재한 의정부은혜교회(담임 김종연 목사)에서 정기 열려왔던 회의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엄 목사는 살전 5:16-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목양지역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며 “이 말씀은 방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 즉, 현재 힘든 사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



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참여한 모든 회원들과 큰 은혜를 나누었다. 이어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헌금기도와 엄하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열려왔던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주산순복음교회)의 기도 시작되어 의장 정광호 목

사(동문순복음교회)의 인도로 개회되어 서기 전하세 목사의 회원점명 순으로 진행되었고 증경회장 임영광 목사의 기도도 열려왔었다. 이후 의정부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은혜가운데 열려왔던 행사를 마쳤다.

또한 3월6일 경기지방회 전회원 일일금식을 선포한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총무 김병호 목사(퇴원한 4명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단과 지방회 및 기도회에 참여하길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 개강예배, 기도를 통한 연단과 훈련 다짐

광주신학교

광주신학교(학장 김영인 목사)에서는 지난 3월 6일 “2017 입학식 및 개강예배”를 드렸다.

교무처장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동교 총무이사 장영기 목사가 기도한 후, 동교 이사 및 학장지방회장 김경구 목사는 롬 1:1-4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화개를 강조하고 “사명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성령충만한 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사장 조원재 목사의 격려사와 학교 및 교수소개에 이어 동교 감사 고재화 장로의 헌금기도, 동교 교수 및 전라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찬 후 학교 발전과 학생수급의 문제해결을 위한 담소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개최, 현 임원 그대로 유임하기로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3월 12일(주일) 오후 5시 제주시 빛내리순복음교회(담임 한영남 목사)에서 제66차 정기지방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1부 경건예배에서는 한영남 목사가 빌 3:7-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으니 사도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그리스도를 바르게 이는데 더욱 힘쓰고 애써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활의 뜻과 부름의 상을 향해 인내하며 꾸준히 달려나가기”고 강조했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지방회장과 총무를 현 임원 그대로 연임하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제주지방회 회원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사역지 방분도 추진하고 수년 내에 모든 회원교회가 각 교회마다 자체 예배당을 확보하는데 소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어서 각 회원교회마다

근황을 소개하며 교회별로 당면한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모두가 합심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인근 뷔페식당에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역주민 섬김 다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홍영광 목사)는 지난 3월 11일(토) 오전 11시 벨엘교회(담임 이영희 목사)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남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모두 함께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조성진 목사(충만교회)의 성경봉독, 김경아 목사(예산초대교회)와 김창우 목사(늘사랑교회)의 특송에 이어 지방회장 홍영광 목사(은혜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흥 목사는 고후 12:7-10 말씀을 본문으로



“작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통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증경회장 심현일 목사(임마누엘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증경회장 심재덕 목사(주안복된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회계 이

한숙 목사(사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보배로교회 구도원 집사의 헌금송과 이영희 목사의 광고, 회장 홍영광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전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벨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교사 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 ‘사랑’ (요 3:16)

- 대상 : 교회학교 교육 담당자 및 교사
- 교재 : 책자 2,000원, 찬양CD 2,000원, 찬양울동DVD 5,000원
- 특징 : ① 여름성경학교 활동프로그램 시연 및 자료 제공
② 새로운 찬양 울동 보급 ③ 중·고등부 특강 및 성경퀴즈 대회

- 일시 : 5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전화 : 031-233-2922 팩스 : 031-223-1793
- 이메일 : hello-pastor@hanmail.net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0101-01-433175(한실회)

* 교단 소속교회 참석인원을 사전에 알려 주시면 좌석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 생명의 말씀 ■



정 형 기 목사

- 대소우리교회 원로목사
- 충주지방회 중경회장
- 즐거운우리집요양원 이사장

사람은 3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육의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나 사명으로 하지 않고 돈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가는 떠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도 큰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 6:24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2) 의리 때문에 사는 사람(육신의 사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 사람들은 의리가 좋습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면서 정말 의리는 좋습다.

3)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영의 사람)

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묵숨 곁고 지키는 성수주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교회 안가면 수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손해 보면서 주일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도리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픔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46:3-5)

오늘 본문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굴이 솔로몬이라는 말도 하지만 아굴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

지 않고 아굴의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한 것입니다.

1.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 시옵소서”(잠 30:8)

제가 76년도 금촌에서 개척하고 유명한 목사처럼 되려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햇병아리 목사였는데 “하나님 천 명의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하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1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복권 한 장사서 성경책 속에 끼우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남은 것은 실망 뿐이었습니다. 그때 크게 부흥이 됐다면 나는 교만해서 이단에 빠져 버렸을 것이고 복권에 당첨됐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천 명이 안 된 것이 복이고 복권 당첨 안 된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꿈은 거짓말입니다. 금호동에 어느 젊은 목사는 꿈이 큼니다. 그 꿈은 개척교회 8천 교회 개척한다는 꿈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100년 동안 1주에 한 교회씩 개척해도 5천 교회인데 1년에 한 개도 어렵고 평생 100개도 어려운데 8천 교

회 세우는 게 꿈이라고 하니 너무 과장된 꿈같아요. 이것이 허탄한 꿈이요 허탄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 받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복을 받습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다가 겨우 구원받은 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의 기본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이 없고 거짓말 잘하면 기본이 안 된 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 의 말씀과 같으니라”(신 6:18-19)

저는 두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1)약속입니다. 2)정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예 22:15)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지기를 축원합니다.

2.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는 열핏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안드는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는 아멘 하지만 “부하게도 마옵시고” 는 아멘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욕심부리지 말고 살아가 때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문제는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죽고 죽이고 갑욕에 가고 이 모든 일이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많이 가진 것 큰 권력을 얻는 것 부하게도 마옵시고 했는데 부리는 말이 꼭 물질적인 것 만 부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명예를 가진 것도 부리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부하게 되면 교만해질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던 사람이 부하게 되니 너무 교만해서 악을 행하다 갑욕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굴은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해서 교만치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동 정

성결대 · 고용노동부 MOU 체결



성결대학교 (총장 윤동철)가 지난 3월 7일(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인력을 지역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 대학원서 축사



교단 서기를 역임한 인천시흥지방회 중경회장 이인규 목사(아세이순복음교회 담임,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는 지난 3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합인학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 입학한 대학원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인규목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상임이사이며 교수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한동대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개설



한동대(총장 장순홍) 평생교육원은 정신재활시설 클립하우스 브스치넷가와 협력,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을 최근 개설했다. 동료지원가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의 회복을 돕고 지지하는 장애인을 가리킨다. 한동대는 동료지원가 양성을 위해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들과 포항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동대 상담센터연구원 등을 강사로 선임했다.

CBS TV 봄 개편, 콘텐츠 강화



CBS TV(사장 한용길)는 2017년 봄을 맞아 개편을 단행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앙의 본질 회복을 목표로 ‘말씀 기도 찬양’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의미와 재미를 함께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 시청자와 만난다. 신앙 간증드라마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 HD로 다시 태어난 ‘더 바이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 대학원생들에게 ‘인권장전’을 만들어라?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라고 하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초 전국의 대학원이 있는 182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특별시 38개교, 부산광역시 12개교, 대구광역시 3개교, 인천광역시 3개교, 광주광역시 10개교, 대전광역시 11개교, 울산광역시 2개교, 세종시에 1개교, 경기도에 28개교, 강원도에 7개교, 충북에 10개교, 충남에 13개교, 전북에 9개교, 전남에 8개교, 경북에 16개교, 경남에 9개교, 제주특별자치도에 2개교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중에는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정신으

로 설립된 대학도 48개교나 된다. 그 공문에 의하면 “대학원생 인권장전”과 “인권전답가구”를 설치하고, 교육부 장관에 대하여 대학원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 권고 공문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세우거나 불이행의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담으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인권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에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하고 있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적지향(동성애)과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하

지 말라는 국가인권위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만들어지면 대학원 구성원들인 교수와 학생 간에 동성애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간접한 비판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면 강의, 학분, 연구활동을 못 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에 보장된 표현, 양심, 학분,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것이 대학원생들이 가져야 할 “권리장전”인가?

이는 가장 학구적이고, 비판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양심과 학분의 자유 가운데 학분을 연구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독재(獨裁)에

가까운 것이다.

더군다나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에서조차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로 몰아가려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종교 탄압’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꾸준히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학들은 이렇듯 인권위의 황폐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분과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히려 지금 각 대학원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듯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오염된 문화를 조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인권 장전’을 만들기보다는 대학원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점차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로서, 균형 잡힌 사고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어찌하여 국가 기관에서는 ‘인권’과 ‘권리’란 말을 빙자하여 ‘동성애’ 옹호를 도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구 사회의 잘못된 문화까지도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문화사대주의’이며 정신이 타락한 문화 속에 예측하기려는 발상임을 왜 모르는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7년 3월 30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2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조 남 영
총 무 목사 최 형 택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화학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 예술, 그 지표에 대하여 ⑤

다시 우리는 기독교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우리가 기독교 예술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차 물으면 그것은 기독교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예술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적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와 기독교적이라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기독교란 그것이 종교상의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 사회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기독교란 한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기독교적이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지

만 기독교적이란 비기독교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술이란 작가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작가가 의도하고 있을 때의 예술적 행위를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작가의 신앙과는 하등의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크르트 호호프의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송홍 역)에서의 신앙과 작가와의 관계를 들어 보기로 하자.

괴테가 기독교 시인이었는지 아닌지는 독자가 기독교적인 작품을 찾아 읽었는지에 달려 있다. 괴테 스스로는 기독교적이며, 이교도적이며, 유대교적이며, 또한 이슬람교적인 작가라고 지적하였다.

문학에서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적이거나 주제적인 상태이지 어떤 형식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에서 그 입장을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이며 기독교인 개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650년 전에 단테에게 그가 기독교 시인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면 그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300년에 35세인 단테가 플로렌스의 한 수도원 원장이었을 당시에 유럽에는 기독교 사상과 체현의 대립만이 존재했고, 그래서 시를 짓고 문학을 하려면 오직 그곳에만 그물을 던져야 했다.

기독교 문학의 의미는 요즈음에 듣는 바와 같이 저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전제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독교 작가가 되어야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독교 문학의 의미는 오히려 예술가의 의지행위라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조직에 대한 작가의 동감에서 야기된다.

신학적 주제의 발현도 중요하였으나 지금까지 기독교 문학에서 금기(Taboo)로 되어 있던 영역과의 연결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심계병중의 여섯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원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20년대의 기독교 독자들이 "원죄소설"에 동의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상상할 수가 없다.



양화진문화원, '2017 양화진 역사강좌' 개최

3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4회 강연 실시

양화진문화원 '2017 양화진 역사강좌'가 개최된다. 이번 양화진 역사강좌의 주제는 '지난 100년 한국교회와 결어은 길-성찰, 회개를 넘어 개혁으로'이며, 3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네 차례 강좌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홍보관에서 열린다.

양화진문화원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비판을 한국 교회 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관점에서 이번 강좌를 기획했다. 특히 올해가 마틴 루터의 교회 비판을 계기로 확산된 종교개혁 500주년을 감안하여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국가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교회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도도 갖고 있다.

이번 역사강좌는 3월 9일 양현태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가 '식민지 시대 한국 개신교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윤정란 박사(서강대 종교연구소)가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한국 교회' (3월 16일)로 두 번째 강연을, 장구식 교수(중앙대 역사학과)가 '개방 독재 시기의 한국 교회와 국가' (3월 23일)로 세 번째 강연을, 변상욱 대기자(CBS)가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 교회의 위기와 과제' (3월 30일)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한다.

이번 양화진 역사강좌의 특징은 네 명의 강사가 모두 목회자가 아니며, 교단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와 언론사에서 기독교와 정치를 취재하는 언론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강사들이 한국 기독교 및 교회 역사의 공과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교단의 영향력에서 벗어

나 지양됨과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화진 역사강좌는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가 '한국 교회와 사회와의 소통과 건전한 기독교 문화 육성'을 위해 설립한 양화진문화원이 2013년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한국 사회와의 관계와 관련된 주제로 매년 초 개최한 대중강좌로 올해로 다섯 번째다.

양화진 역사강좌는 기독교인은 물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수강료 없음), 지난 4년 동안 매 강좌마다 3~400명이 참여하여 열띤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강좌다. 양화진 역사강좌에 참여하려면 양화진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anghwajin.net>)에서 사전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3·1절 기념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

시흥시기독교연합회 3·1절 기도회 기도문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기독교사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영적 부흥과 그에 따른 정신 혁명과 물질 축복을 물듯이 부어 주시므로 전 세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부려움을 사게 하여 주신 전지전능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키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기에 오늘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주관 3.1절 기념 기도회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백척간두 사면초가 심산유곡 진퇴양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앞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펴도 솟아 날 구멍이 없기에 위로 하늘이 열려 홍해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변 열강들은 5천년 이래로 한시도 평안함 없이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현재 남북한을 가지고 서로 지렛대로 활용하여 압박하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본사적으로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극단의 행동으로 세계의 가슴거리

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은 탄핵정국을 맞이하여 국론이 최고조로 분열되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휩싸여 민족의 백년대계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하신 약 5:17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로 죄 용서받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곳에 모여 기도 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상황이 되었으니 살려주옵소서.

아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습뿐이니 도와주옵소서.

아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계 상황이오니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잘하겠으니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우리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17년 3월 5일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이인규 목사

송교연, '3·1절 기념 연합예배' 성료

소속 목회자와 성도 등 250여 명 참석

송탄교역자연합회(회장 이태윤 목사/이하 송교연)는 지난 3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경기도 평택시 남부전원교회(담임목사: 박춘근)에서 송교연 소속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8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송교연 회장 이태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3.1절 기념예배는 송탄장로연합회 전 회장 최형선 장로의 대표



기도, 송교연 실행위원 김학인 목사의 성경봉독, 남부전원교회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송교연 중경회장 박춘근 목사(남부전원교회 담임목사)는 행 1:6-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원한 애국자'라는 설교에서 "예수님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가 힘이 정의의 힘이 평화라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교회도 교인도 진정한 애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능력을 함양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특별기도 순서는 송교연 부회장 남기수 목사가 '삼일절선 계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택시 성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준철 장로가 '민족 복음화와 평택시 성서화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특별기도 후 송교연 회계 이상훈 목사의 헌금기도와 남부전원교회 임종복 집사와 강은진 집사가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었으며, 송탄(북부)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현웅 목사가 만세 선창을 한 후 송교연 총무 김종래 목사의 광고, 송교연 중경회장 이국현 목사의 축도로 제98주년 삼일절기념 연합예배를 마쳤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하라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양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7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전수 목사

HP : 010-3698-57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 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표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총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 (새사랑교회)	김영덕 목사 (영등포교회)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지도교문	지도교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뽕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윤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백영자 목사 (능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영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전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평안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평안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양은혜 목사 (천주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정환우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서법석 목사 (가나안영성원교회)	정예스터 목사 (예수향기교회)	옥보애 전도사 (소망농악교회)		

선조들의 신앙 계승, 겨레의 희망으로 창조적 변화 성취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제98회 3.1절 국가기도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이하 예장연)는 지난 3월 1일(수)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및 대한민국 국민이여 잠에서 깨어나라!'는 주제 아래 '제98회 3.1절 특별국가기도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와 평화와 민족 구원의 정신,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며 7천만 민족의 희망으로 이 나라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예장연 기행 교단 목회자와 성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린 예배는 이강의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박용기 목사(기독교지도자협)의 기도, 정찬희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 예장평신총회 임원일동과 예장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송기

호 목사(지분위원)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송 목사는 '주님이 요구한 지도자' (엡 3:13-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도자는 첫째,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둘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다. 넷째, 만사가 총명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에 이어 육육수 목사(고분)와 김기영 목사(고분)의 축사, 이성현 목사(상임회장)와 차복환 목사(상임회장)의 격려사,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서재복 목사(고분), △교회와 정계지도자와 대통령을 위하여, 최병남 목사(예장 총회장), △한국

경제와 사회와 복지를 위하여, 한순용 목사(지분위원), △WCC와 이단 패망을 위하여, 손영란 목사(지도위원), △한국교회 말씀 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하석수 목사(지도위원), △한국교회 제2종교 개혁과 예장연을 위하여, 임은선 목사(지도위원)가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김마리 목사(부회계)의 한금찬송, 오선미 목사(회계)의 한금기도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 목사는 "3.1절 98주년을 맞아 혼란한 이 나라를 안정 가운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례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삼일절 선언문을 손대영 목사(서기)가 낭독하고, 황근옥 목사(지분위원)의 만세삼창 후에 주요한 목사(지분위원)의 축도로 국가기도회를 마쳤다.

예장연은 선언문을 통해 "일제의 암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오해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실상 분단 72년의 현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3.1운동은 종교와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보인 자주와 자유와 평화의 정신이 나타난 운동이었

제98회 3.1절 특별 국가기도회

일시: 2017년 3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대강당)



다"면서 "33인 가운데 절반인 16명의 기독교인이 이 운동을 주도했고 한국교회는 이런 바탕 위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먼저 교회 안의 갈등을 그치고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데 앞장서서 민족 구원의 정신 계승, 3.1운

동과 기독교 사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교류의 확대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내가 먼저 운동으로 정치, 정경, 봉사, 화합의 실천 덕목 실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데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 임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입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하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입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

당지는 제출자의 인화하여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총회 임원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입후보 등록 가·부를 입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3.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등록한 입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거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 회원에게 공지한다.
5. 선거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입후보자 및 총 회원은 즉시 선거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6. 총회임원 입후보자가 선거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거위는 입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거위에 제출한다.
8. 등록비는 총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입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1. 총 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절대행위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총회 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6. 기타 선거운동
7.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거위 공고일부터 정지총회 후 1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각 1부씩

1.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2. 안수 증명서 (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3. 상하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4.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5.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6.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7.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8.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9. 이력서 및 교단 내 이력 소개서
10.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11.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2017. 3. 31(금) 17:00까지
2. 등록장소: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정의섭 목사
(010-8145-445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정 의 섭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홈페이지: www.영신상조.kr

콜전화: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CTS TV·라디오JOY 필리핀 개국 1주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주신장로교회 황규한 목사 초청 축하예배 드려

주신장로교회 황규한(요한) 목사가 CTS TV·라디오JOY 필리핀 개국 1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설교자로 초청되어 지난 3월 5일(주일) 오후 5시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담임 진대홍 목사 시무)에서 축하기념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약 200여명의 한인 선교사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KUCM(한인)의 찬양인도와 주신장로교회 황규한(요한) 목사의 설교와 미라클 찬양팀의 은혜로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2부에서는 그레이스 리(이경화)의 사회로 내빈소개와 시상식으로 진행돼 공로상과 위촉장 및 감사장을 증정했고 새로운 운영 이사를 선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윤여일 국장은 “오늘까지 CTS TV·라디오JOY가 개국 1주년 만에 크게 성장, 현재 8가지 프로그램을 방송중이며 뉴스플러스 프로로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기독교 소식 및 선교지 사역을 방송하고 있어 더욱 큰 기쁨을 주었다”면서 “앞으로 따갈로그어로 진행되는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 중에 있어 현지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복음



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요즘 들어 더욱 위험에 노출된 필리핀 지역에 제3차 선교활동(3월 2-5일)을 가게 된 주신장로교회 황규한(요한) 목사는 필리핀 아렌다 평강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에 CCTV를 설치하여 주었다.

아렌다 평강교회는 고 조태환 선교사가 순교한 교회이며 현재 한인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상

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선교사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는 실정이다.

또 황 목사는 이번 선교에서 예배참석자들에게는 썸을 지원하고 빈민 지역에서 밥과 의복 등을 실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교인들과 선교사가 안심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소품 및 물품들과 어린이 모집광고 현수막을 지원했다.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 네덜란드

동두천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한국인들은 네덜란드라 하면 하딩크의 나라를 연상한다. 네덜란드는 나라 이름 자체가 유별나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Underland', 땅 아래의 나라라는 뜻이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네덜란드 국토의 넓이는 남한 땅의 절반이 안 되고 인구는 1,700만이다. 그런데 수출은 세계 3위이다. 특히 농도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농산물 수출이 세계 4위이다.

네덜란드의 수출품 중 튜립이 큰 액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튜립을 많이 심게 된 연유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 표면보다 낮아 흠에 염분이 많다.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들이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튜립이다. 튜립이 소금에 강한 것을 알고는 많이 심어 이웃 나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네덜란드의 꽃 수출이 세계 1위가 되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다. 네덜란드를 방문해 보면 그렇게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수출 세계 5위라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의 국민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회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네덜란드는 크리스천들 그중에서도 장로교 교인들이 세운 나라이다.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칼빈은 본래는 프랑스 출신이다. 그런 그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였다가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타를 잡게 되었다.



칼빈의 제자들에게서 두 가지의 흐름이 일어났다. 장로교와 청교도이다. 영국으로 간 칼빈의 제자들이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고,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 간 인맥이 장로교 운동의 출발이 되었다. 네덜란드는 장로교 교인들이 세운 나라이다. 특히 장로교 목사였던 코이페르가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수상에 오르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국가 운영의 기틀을 닦았다. 오늘날 네덜란드의 번영은 장로교 목사였던 코이페르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불모지에 세워진 나라 네덜란드가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 위에 국가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성경적 가치관과 함은 4가지 윤리적 실천을 내용으로 한다. 1) 자유 2) 정직 3) 근면과 절약 4) 합리성이다.

네덜란드 국민성의 기초는 자유이다.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이다. 그 자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포함한다. 성경 중 크리스천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인 갈라디아서에서 그 자유를 다음같이 일러 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를 매지 말라”(갈 5:1)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후예인 장로교도들이 세운 나라인 네덜란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윤리관 위에 합리적인 국가경영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런 시스템의 기초를 확실히 닦은 정치가가 목사로서 수상이 되었던 코이페르 목사이다. 그는 성직자이면서 교육자도 정치가였다. 그가 1901년부터 5년간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있는 동안 국가경영의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육 시스템이다.

네덜란드는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불과 18%이다. 대학 갈 나이에 이미 각자 적성을 따라 평생을 일할 직업을 선택하여 자리를 잡는다. 굳이 대학을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교육환경 탓이다.

네덜란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가 국가 부담이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로와 직업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6년간 한 선생님이 끝까지 담임을 맡는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자신의 적성을 찾는 기간이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찾아낸 자신의 적성을 발전시키는 기간이다. 이 모든 과정을 한 선생님이 맡아 지도하기에 선생님은 맡은 학생 15명에 대하여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도한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 찾아 다진 자신의 적성을 따라 직업 훈련이 시작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면 거의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직장을 얻게 되고 계속 학문을 할 학생들 18%만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우리나라에도 교육학 박사과 교육학자들이 많다. 정부 기구 중 교육부가 있어 해마다 수십 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네덜란드 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짤 수 없을까?

(사)월드뷰티핸즈 광주지회 창립식

전국 전문교수뷰티서비스 조직 확대

국제뷰티구호개발NGO (사)월드뷰티핸즈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3월 3일 오후 광주 프라도 리일락홀에서 광주지구JC특우회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협력하여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지회 창립식을 가졌다.

지정훈 교수(광주대)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식 순서로는 정원진 교수(광주여대)와 전현진 교수(호남대)의 창립선언문 낭독, 정관 승인, 광주광역시지회를 이끌어 갈 이사장, 회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위촉식을 가졌다.

정현일 중앙회 이사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광주 사랑의 어머니, 여성교육의 선구자 서서평(세광:ELShepping)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간호사로서 전문성과 고아와 과부, 난민자를 비롯 버려진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끊임없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그분을 담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뷰티서비스와 뷰티기술을 전수하는 손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기관의 유기적인 연합과 지원을 위해 (사)월드뷰티핸즈 정현일 이사장, 최에스터 중앙회장과 최윤희 광주지회 이사장, 나명석 회장은 광주지구JC특우회 강명수 회장과 광주지구JC특우회 박병채 회장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선임된 광주광역시지회임원에는 이사장 최윤희 원장(유드립한의원), 회장 나명석 교수(광주여대), 이사 지정훈 교수(광주대), 정원진 교수(광주여대), 전현진 교수(호남대), 김신미 교수(동신대), 오수정 교수(조선이공대), 윤희 교수(조선이공대), 허미라 교수(동신대), 배세현 강사(세일봉봉 원장), 감사 김미숙 강사(미아스킨케어 원장), 사무국장 이슬지 강사(연안대)가 위촉되었다.

이날 창립식에는 중앙회 조현주 감사, 윤성재 사무국장, JC특우회 김해수 사무처장, 양상욱 총무위원장, 이윤희 광주지구JC회장 등 내·외빈과 창립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침신대 2017학년도 616명 신입생 입학

이형원 총장대행 “침신대를 우리의 벨엘로 만들자”

침례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형원) 2017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화) 교단기념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침신대에는 학부 364명, 대학원부 252명 등 총 616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날 입학식 후 학생들은 교수 및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병모 교무처장의 사회로 정승태 목회신학대학원장의 기도, 교회음악과 이광호 교수가 지휘하는 교회음악과 관현악단의 특별연주 후 이형원 총장직무대행이 ‘우리의 벨엘’ (창 28:10-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형원 총장직무대행은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러분이 침신대를 선택한 것이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며 “3년 또는 4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배워 및 사색예배를 통해 신앙을 키우고 졸업까지 성경을 다독하고 독서와 학업에 충실하여 지성을 깨우고, 미래의 국제적인 사역을 위해 학업으로 준비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무처장의 학사보고와 총장직무대행의 입학하기 선언에 이어졌으며, 신학과 이기연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입학선서를 했다.

이후 총동장회 수석부회장 이종성 목사의 축사, 교회 진흥위원장 이요섭 목사가 격려사, 신입생 장학금 수여, 교직원 소개 후 이형원 총장직무대행의 축도로 입학식을 마쳤다.



패키지여행 / 허니문 / 크루즈 / 골프 / 어학연수

적립식여행 시스템으로 목돈의 부담없이!!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매월 적립식 납입으로 부담없이
납입기간 내 완반 시 언제든지 출발가능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가능
고객의향에 따른 맞춤 설계시스템

☆품의 여행단모집☆
010-2339-7601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320호
(번동 446-13)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목자카페’ 오픈

임원순 목사 성역 37주년 기념으로 원로목회자들에게 무료로 제공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은 지난 3월 6일(일) 오전, 원로목회자들을 위한 쉼터 ‘목자카페’ 오픈 감사예배를 드렸다. 목자카페는 기독교의 요충지 종로5가에 위치해 원로목회자들의 쉼을 제공하며, 원로에게 재충전의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예배는 김진욱 목사(행생목회 대표회장)의 사회, 최복규 목사(한기원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김정옥 목사의 특송, 조용길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총재)이 ‘한 가지 일(시 27:4)’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임원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이상모 목사(한기원 명예회장)의 감사인사말, 최복규 목사(한기원 중경회장), 정근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 송용필 목사(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사, 신현우 국장(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의 내빈소개 및 광고로 이어졌으며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교도지서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은수 감독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말씀 위에 기초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평생 주님 전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한다. 주님 집은 주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

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를 부르심 받은 자리로 믿고 그 자리를 주님 집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원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4년 전 원로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한국교회원로목회자의 날’을 시작으로 뜻있는 행사와 구국기도회와 포럼 등을 진행하며 원로목사님들을 더 잘 섬기기를 소망했는데 드디어 원로목회자들의 쉼터인 ‘목자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원로목사님이 편안하게 쉬기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장소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목사는 “은퇴 후 여유시간이 늘어나는 원로목회자에게는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의 많은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본인의 삶이나 후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목자카페에서의 효과적 인 여가시간 활용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는 원로목사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후대에게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성장의 안내를 해 줄길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CTS, ‘C-kids스쿨 프로그램교사교육’ 개최

개설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교육 컨설팅 진행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오는 21일(화)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CTS 멀티미디어센터에서 ‘C-kids스쿨 프로그램 교사교육’을 개최한다.

CTS C-Kids스쿨 프로그램교육은 어린이 전도와 부흥을 위해 기존의 설교회와 운영교육을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운영절차 교육, 교회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나눔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C-Kids스쿨은 교육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업에서 개발한 교사용 매뉴얼을 제공해 준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 교회학교를 운영하면서 각 교회 상황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한국교회 내 침체되어 가는 교회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회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된 C-kids스쿨이 다음 세대 사역의 큰 끈을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싱 더 바이블 영어 학습과 성경교육을 동시에!

이번 C-Kids스쿨 프로그램 교육은 특별히 ‘싱 더 바이블 교사교육’이 함께 열린다.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다시 노래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복음과 친해지고 영어 실력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교회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을 진행한다.

애니메이션과 노래를 통한 흥미 학습과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을 노래 부르며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시대에 중요한 성품을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위인들의 올바른 성품을 스토리텔링형식으로 영어 학습과 성경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영상으로 바이블 송을 모두 배운 다음 액티비티북으로 단어와 쓰기공부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싱 더 바이블(Sing the Bible) 교사교육을 실시한다.



제26차 웰라이빙 지도자 세미나 진행

하이패밀리, 고난주간에 진행되는 ‘임종의 신앙수련’

시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웰라이빙(Well Living : Well Living & Leaving) 세미나가 하이패밀리 W-Story에서 진행된다. ‘웰라이빙’ 교육만이 아니라 ‘임종의 영성’으로 심자가 묵상, 위로·안치 예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현장학습이 가능한 하이패밀리 W-Story에서 진행된다. W-Story에는 수목장과 갤러리, 청량교회 등 치유와 회복을 테마로 하는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이 세미나는 미디어를 통해 탁월한 교육 콘텐츠로 평가받고, SerCBD(산성정제연구소) 온라인 강좌, KAIST카이스트행정교육의 오프라인 강의, 육본 사령부 사령관 교육자료, 공군 지휘관 교육 자료로 제공됐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부활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예화자료와 강의록을 제공할 뿐 아

니라, 부활주일을 밝힐 이스터트리에 사용할 수 있는 트리 에그를 참가자들에게 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스터트리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을 기념하는 뜻에서 시순절로부터 성령강림절까지 밝히는 부활절 트리이다.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이스터트리 빛을 밝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참여대상은 목회자와 호스피스 봉사자, 임종영성에 관심 있는 리더들이다. 세미나를 수료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증인 “웰라이빙 교육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한국임종영성학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부활을 소망하여 품격 있는 임종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문의:하이패밀리

제98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 드려

평택시 남부기독교연합회 주최로

평택시 남부기독교연합회(이하 남기련, 회장 기길선 목사)는 지난 2월 26일(주일) 오후 2시 30분 평택시 남부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평택평안교회에서 제98주년 삼일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삼일절 기념예배는 남기련 전 회장 김봉현 목사의 사회로 남기련 전 회장 이상일 목사의 대표기도, 남기련 서기 박종승 목사의 성경봉독, 평택중앙교회 찬양대의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남기련 직전회장 김옥복 목사는 느 1:1-11 말씀을 본문으로 ‘하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조직된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의 기독교인들이 범민족적인 삼일운동을 주도하였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비탄 위에서 교회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우리 성도들은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



을 위해 기도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에서 남기련 전 회장 윤영학 목사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남기련 전 회장 성백수 목사가 ‘교회의 일치와 부흥을 위하여’, 남기련 부회장 한신교 목사가 ‘평택시 복음화를 위하여’ 각각 기도한 후 감사패 전달식과 남기련 부회장 조대희 목사의 헌금기도, 남기련 부총무 한중희

목사의 광고 후 남기련 전 회장 신용현 목사의 축도와 만세 삼창으로 제98주년 삼일절 기념 연합예배를 마쳤다.

한편 평택시 남부기독교연합회는 오는 4월 16일(주일) 새벽 5시 평택대학교 90주년기념관에서 평택 남부지역 교회연합 부활주일 새벽예배를 갖는다.

안전한 통학로 위한 옐로카펫 효과 세미나 개최

초록우산, 안전통학로 옐로카펫 확대 10명 중 8명 찬성

어린이 10명 중 8명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 보도 안전지대인 ‘옐로카펫’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이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계현)은 국제아동인권센터(대표 이양희)와 공동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옐로카펫 효과 분석 세미나’를 열고 옐로카펫 설치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 대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된 옐로카펫이 아동의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및정부차, 연구자들이 참석해 아동교통안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지리



에는 김세연 의원(바른정당, 진성미 의원(더불어민주

당)이 참석해 아동안전을 위한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옐로카펫 효과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637명, 성인 1,5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옐로카펫

설치지점 현장조사, 실차실험 등으로 진행됐으며 동부회계의 후원을 받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들의 경우 운전 중 옐로카펫 인지 후 행동에 대해 76.4%의 응답자가 ‘평소보다 감속하여 주행하였다’고 대답했고, ‘차량을 정지하여 좌/우 확인 후 주행’한다는 대답이 14.6%로 뒤를 이으며 옐로카펫 발견 후 더욱 안전운전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옐로카펫으로 인한 감속효과에 대한 실차 실험 결과 옐로카펫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오히려 주행속도보다 평균 12% 가속하는 반면 옐로카펫 진입 직전에서는 주행속도에서 평균 17.5%를 감속해 비교적 높은 감속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아름다운포도원교회 창립예배

교단직전총회장

유명강사초청

21일연속 부흥성회

주제 수년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3장2절)

일자 2017년 4월17일~5월7일까지

전화 010-3016-3127 041)664-7720

성회강사

4월 17일(월)	4월 18일(화)	4월 19일(수)	4월 20일(목)	4월 21일(금)	4월 22일(토)	4월 23일(일)
조복영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김이영 목사 (전북영광교회)	신영희 목사 (새강원교회)	최종식 목사 (새소망교회)	김영환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김영환 목사 (영광이웃하는교회)	박석현 목사 (순천교회)
4월 24일(월)	4월 25일(화)	4월 26일(수)	4월 27일(목)	4월 28일(금)	4월 29일(토)	4월 30일(일)
송백선 목사 (여사당교회)	이종영 목사 (다사당교회)	서영희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윤영수 목사 (순복음생태교회)	최선규 목사 (순환산영광교회)	안영복 목사 (온천교회)	조재우 목사
5월 1일(월)	5월 2일(화)	5월 3일(수)	5월 4일(목)	5월 5일(금)	5월 6일(토)	5월 7일(일)
김영환 목사 (동문교회)	김미희 목사 (사랑이교회)	최영복 목사 (광산영광교회)	이정영 목사 (구미영광교회)	오성현 목사 (임마누엘교회)	고사라 목사 (임마누엘사랑교회)	조재우 목사
이애라 강로병 전남을동신학교 교무장 전담수석사	장동익 목사 (순복음봉기교회)	황재주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유은숙 목사 (실로암교회)	김하은 목사 (메소다교회)	나은정선도사	한양 순지연자매

찬양과경배

아름다운포도원교회에서 가정회복과 영적회복을 위한 365일 예배를 개최하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바랍니다.

아름다운포도원교회

TEL:041)662-5533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5-39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합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서 지 방 회

순복음아름다운포도원교회 창립예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명강사초청
21일 연속 부흥성회

주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합 3:2)
일시 2017년 4월 17일(월)~5월 7일(주일)



설교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담임



오재우 목사
순복음아름다운포도원교회

일시 | 2017년 4월 17일(월) 오전 11시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서 지 방 회 순복음아름다운포도원교회 (담임 오재우 목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5-39 ☎ 010-3016-3127, 041-664-7720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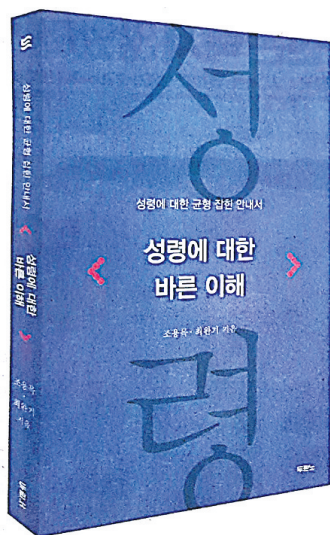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슬람선교학교 2017년 봄학기 준비

FIM국제선교센터 오는 30일~6월 1일까지 진행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테러 성향이 있는(terrorism-prone) 이슬람 7개 국 국민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새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유는 미국에 이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미국에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통해서였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이 들어왔고 1970년에는 30만 명의 아랍인들이 이민을 왔다. 미국의 무슬림들은 42%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24.4% 인도인, 12.4% 아랍인, 5.2% 아프리카인, 3.6% 이란인, 2.4% 터키인, 2% 남아시아, 1.6% 백인 미국인 그리고 5.6%는 다른 민족들이다. 그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22개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시카고에만 약 100개의 모스크와 약 50만 명에 가까운 무슬림이 살고 있다. 또한 미국에 약 135만 명의 이란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80%가 무슬림이다

중동이 과거 비잔틴 기독교제국이었으나 오늘날 모두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다.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이민을 통하여 성장해왔다. 이민자들이 유럽이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으며 미국도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무슬림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본다. 이제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슬람국가(튀르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



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로부터의 이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한국 이슬람 인구는 1966년 208명에서 60년 만에 약 25만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슬림공동체는 한국 안에서의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으로 소리 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슬람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알아야 한다. 외국인 무슬림들도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개종자들의 약 80%가 기독교인들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슬람선교학교는 서울 대림동 FIM 선교센터에서 3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

강사로는 유혜석 선교사, 김성봉 교수, 김지호 교수, 수윤정 교수, 신인철 목사 등이 나서며,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견해, 이슬람의 믿음과 행동기

동, 이슬람원리주의와 지하드,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예수와 무함마드 비교연구, 이슬람의 문화와 선교전략, 이슬람과 여성, 이슬람의 알리와 기독교의 하나님,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 등의 주제로 모두 석,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슬람 관련 논문을 쓴 현직교수 그리고 이슬람선교에 경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선교학교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슬람선교 신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슬람 선교학교는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이슬람을 배우며 이슬람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나날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데 강점이 있다.

모집대상은 이슬람권 선교관심자와 목회자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며 사전등록 시 3월 10일까지 13만 원, 이후로는 15만 원으로 40명 선착순 등록을 마감한다. *문의: 1599-5591(FIM국제선교회 사무실/ www.fim.or.kr)

기획
이슬람을 바로 알자

한국복음주의협 강의를
김영한(한복합신학위원장/기독교학술원장/승실대기독교대학원설립원장)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 ①

-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

이슬람의 알리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존재인가?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쓴 책이 『알라』(VP)로 번역되고 지난해 1월 은혜와선물교회(송용원 목사)에서 출판 기념 좌담회까지 열려서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슬람의 알리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한 신이라고 보는데서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볼프의 주장에 의하면 '존재론적 일치 대상을 인식론적 신 이해의 차이로 보아, 두 종교가 믿는 두 신(神)은 결국 같은 존재'라는 것인데 필자는 볼프의 주장을 단호히 거절한다. 필자는 알리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성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한다.

I. 알라 신의 유래: 알라는 메카의 카바 만신전의 석신(石神)
오늘날 13억 아랍인들이 순례하고 있는 메카의

카바(Kaaba) 신전은 본래는 360여개의 수호신 및 자연 신(神)을 섬기는 만신전이었다. 카바 신전에는 검은 돌이 있다. 이것은 석신으로서의 알라(Allah)를 상징하고 있다. 알리는 무함마드 이전에 있었던 카바의 석신으로 당시 아라비아의 주신(主神)이었다. 알리는 아랍의 토속종교의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었다. 무함마드는 알라가 쿠라이쉬 부족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들을 굶주림과 공포로부터 구원하신 신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알라를 지고의 신으로 높였다. 따라서 알리는 카바의 신이며 석신(石神)(god of stone)으로서 아랍토속의 다른 신들보다 높은 신일 뿐이다. 알리는 유대민족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열조를 인도하시고 호렘산에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

II. 성령의 신성 부정 -이슬람의 영(jinn)

1. 무함마드가 받은 진(jinn)은 성령이 아니라 토속신(두려움의 영)이다. 무함마드는 40세가 되던 610년 라마단 시기에 당시의 종교적 유행에 따라 메카(Mecca)에서 5km 떨어진 광야에 있는 하라산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였다. 그때 그는 동굴 안에서 시끄러운 종소리와 같은 광음의 환청을 경험하고 한 영을 보게 되었다. 무함마드는 처음에는 이 방문자를 신령(神靈, Jinn)으로 생각했다. 그 영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변모해서 사생활을 해롭게 간섭하는 정신상태에 사로잡히게 했다. 무함마드에게 내린 신령이란 당시 유행했고 아랍인들이 이미 토속적으로 섬겨왔던 강신술이나 주술술세의 영이었다. 무함마드의 초기 계시에 있어서는 계시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다만 "무명의 영(jinn)"이라 칭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622년 하지로 이후에 이 무명의 영을 가브리엘과 동일시하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사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지도자 선출에 총력 기울여야

2017년 3월 10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화와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및 애국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인으로부터 무참히 불법적·정신적인 폭력을 당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국가 안보와 중북·좌익세력의 '불법적인 대통령 축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대통령 탄핵이 위법 부당함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엄동설한 강추위 속에 수백만의 국민이 애국집회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의 기도와 호소를 전혀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에도 배반되는 판결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로 인해 항의하는 애국 시민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성경에 "피움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밭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 16:1)고 말씀한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우리 보기에는 비참하고 충격적이지만, 우리 성도를 모두는 극심한 비탄 속에서도 과연 우리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들은 부당하게 축출된 대통령을 위로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 기도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8)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참담(慘憺)한 일을 당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메아리치는 한 가지 분명한 지혜가 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태극기 애국성도 및 시민들은 철통같이 단결하여, 저 중북·좌익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나갈 지도자를 선택하여, 올바른 투표를 행함으로써, 참된 민심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판결을 보면서 록 18:1-7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상기하게 된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재판관이라 했다.

그들은 명색이 국책을 먹으며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정의와 공의(公義)를 실천하는 최후 파수군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본

분을 망각하고 "한법 수호"라는 미명(謬名)으로 법의 칼날을 거꾸로 휘둘러서, 바로 그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나라는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기록하고 제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세 가지 중대한 반 헌법적 오심 판결을 자행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통령 파면을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바로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으뜸가는 헌법적 가치 파괴 행위를 하였다.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야 범조원로들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탄핵심판이 국회 결의 과정에서 토론, 생각, 조사와 증거부제, 무더기 병합 탄핵소추 이유 결의 등,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반 자유민주적 절차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적법 절차상' 원천적으로 불법임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선고문에서 주장하기를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역설이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에 있어서 절차상 중요성을 능가하는 "헌법수호의 압도적 이익"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불려진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과정에서 보편적 알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당선되었다 해도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각 당선무효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로 헌법재판관들은 확인되지 않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법적 공모관계를 가정사실로 단정하는 불법을 감행했다. 재판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재판 권한이 없는 현재에서 먼저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중대한 위헌적 행위를 범했다.

셋째로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주요 이유로 삼아 선고하였다. 이는 피소추인의 자유권과 항변권을 부정한 위헌적 보복 행위에서 나온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시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시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 주 지 방 회

제주한마음교회

교회설립 20주년 및 새성전 입당예배



설교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김건수 목사
제주지방회장
제주한마음교회
교단부흥사회 상임총무



| 일시 | 2017년 4월 4일(화) 오후 4시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 주 지 방 회 제주한마음교회 (담임 김건수 목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동로 31-4번지 ☎ 064)744-9182 010)3698-5764
※이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하오니 부디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